

[붙임 2]

DU-도전학기 결과보고서

성 명		학 번	
단과대학		학과(전공)	
도전학기 과제명	(국문)지역 주제 에세이집 제작을 통한 전공 및 취업 역량 강화 (영문)Developing majors and employment competencies through the production of local essay books		
지도교수 의견	학생은 평소에 학업에 충실했을 뿐만 아니라 참가신청서에 기재된 교내외 활동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전공을 바탕으로 한 각종 콘텐츠 제작 활동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왔습니다. 이번에 DU-도전학기 대상자로서 훌륭하게 그 목표를 성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1. 도전 과제의 목표

우선 도전 과제와 관련하여 일차 목표를 수립한 후, 그로 인해 도달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였다. 일차 목표는 지역(대구 및 경주) 관련 경험을 담은 에세이집을 출간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목표는 이를 통해 전공 역량 강화와 취업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잡았다.



< 도전 과제 목표 도식화 >

1.1. 지역 주제 에세이집 제작

단순히 개인적으로 독립 출판을 한다거나 작품을 만들고 싶었다면 도전 ^{작가로서의} 학기를 목표로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글을 쓰고 책을 내는 과정 속에 지역을 살펴보고 스토리텔링을 가미하는 작업들은 일종의 공부라고 생각했다. 이를 학교와 연계해서 작업할 수 있다면 더욱 안정적으로, 도움이 되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에세이집의 내용 면에 지역의 현안, 지역 소외로 발생하는 문제 등 지역이 가진 문제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보 전달, 사회적 제언 형식의 글이 포함될 예정이다. 해당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 내가 그 지역을 어떻게 느끼는지 등 지역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내용도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1.2. 전공 역량 강화

국어국문학을 전공하며 항상 느끼는 생각은, 원론 학문을 공부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테면 현대 문학의 역사를 공부했다면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직접 여러 문학이 창작된 지역, 시대적 배경 등을 확인해보고 이를 재구성하거나 자신만의 방법으로 기억하는 과정이 있어야 온전히 자신의 공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점에서 경상북도의 대표적인 대구와 경주의 지역을 공부하고, 그 안에서 나만의 글을 찾아 다시 창작해보는 것은 전공 역량 강화의 일환으로 충분히 가능한 작업이다.

1.3. 취업 역량 강화

목표를 설정하는 데에 있어 (학과 특성 상) 취업에 대한 부분도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이다. 국어국문학은 다른 어학 계열의 학과와 다르게 자국의 언어에 대한 학문이기 때문에, 해외로 취직하거나 해당 언어를 사용하여 취업하는 다른 어문계열 학과와 비교했을 때, 세계적인 도약에서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전공에서 배운 학문들을 잘 활용하여 언어 사용에서의 정확하고 민감한 감각을 키우는 데에 사용하는 것이 더 경쟁력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번 도전 과제에서는 지역의 감성을 관찰하고 느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를 기록하고 다듬는 과정에 활용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출판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구성하고, 책을 이루는 다양한 요소들을 직접 선별하는 과정을 통해 글을 사용하는 직업, 출판업계, 디자인계열의 취업 역량의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2. 도전 과제 내용

2.1. 사전 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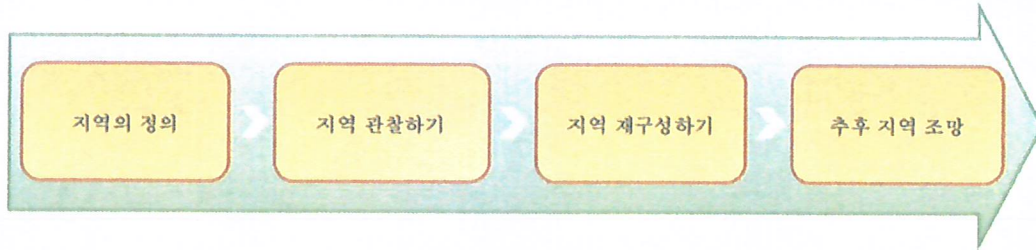
본격적인 작업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세부 지역을 선정하는 일이다. 대구 원도심이라는 큰 주제 속에서 구체적인 지역이 선정되지 않은 것은 특정 한 지역의 이야기만을 담기보다 ‘지역’이라는 그 자체를 주제로 잡았기 때문에, 세부 지역에 관한 이야기는 에세이 내에서 지역의 가치와 관련한 경험으로 풀어나갈 생각이다. 여러 활동을 통해 대구 원도심의 역사와 발달에 대해 공부해온 바 있어, 대구의 지역 중 아직 더 관심이 필요해 보이는 지역이나 이미 공부했던 곳 중 인상이 깊은 지역을 세부 지역으로 선정하여 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여러 지역 답사 및 파악을 통해 세부 지역은 대구 시가지 주변부 공평동 일대로 선정하였다.) 추가적으로 현재 이미 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주 황남동 일대의 지역 상권 또한 다뤄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인 신정일의 ‘선택리지’, ‘다시 쓰는 택리지’를 참고하여 대구 및 경상도에서 주목할 만한 이야기 등을 가져올 생각이다. ‘택리지’는 조선 영조 27년, 실학자 이종환이 저술한 우리나라의 지리서로, 문화사학자이자 답사가인 신정일 선생이 역사적 유적과 현대적 시각으로 새롭게 우리나라의 지리와 문화 등을 바라보고 담아낸 인문지리서이다. 따라서 이 책들에서 지역을 소개하는 방식을 분석하여 이번 에세이에 담아보고자 한다. 또한 답사 기간이 짧고 시간이 한정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전문적인 사진이나 옛 지역의 사진 등은 ‘대구 지오그래피’ (박진관)를 참고하고자 한다. 해당 도서는 대구의 전 지역을 대상으로 오랜 기간 답사를 진행한 저자의 글과 사진이 수록되어 있어 이번 작업에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빅데이터, 사람을 읽다’ (BC카드 빅데이터센터)에서는 경주 황남동의 상권분석 관련 내용을 참고하고자 한다. 경주의 다양한 계절의 사진을 가져오기 위해 ‘경주 휴’ (원문규)를 활용한다.

2.2. 지역 답사 및 원고 작성

답사 시에는 사전 조사한 지역의 역사를 바탕으로, 지역이 발전해오면서 새로 생겨난 것, 사라진 것들을 구분하여 분리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이러한 것들을 사진으로 남겨 역사가 지역에 머문 흔적을 다루는 에세이의 한 부분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또한 지역 상인, 주민 등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여 사전 조사 시에 중점으로 두었던 내용들을 물어보고,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는지 알아볼 계획이다.

일차적인 지역 답사가 마무리되면, 초고를 위한 자료 정리를 시작한다. 목차 구성에 따라 자료를 나누어 자료들에 덧붙일 경험들을 어떻게 스토리텔링 할지 계획한다. 내용에 맞는 사진과 일러스트 자료 등도 여기에서 분류하는 작업을 거친다. 목차의 제목을 정확히 정하지는 않았지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 내용 진행 순서(예정) >

① 지역의 정의 부분에서는 지역이라는 이름이 가지는 범위가 어디까지 허용될 것인지, 지역을 어떻게 인지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리고 추가적으로 다른 자료에서 인용한 내용들로 채워나갈 생각이다. ② 지역 관찰하기 부분에서는 직접 내가 관찰했던 곳과 이번 도전 학기 과제로 답사한 지역에서의 모습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지 분석해볼 계획이다. ③ 다음으로 지역 재구성하기에서는 앞서 분석한 자료들을 다시 재구성하여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좋을지 살펴보고 결과물들을 비교해보는 부분을 담으려 한다. ④ 마지막으로 추후 지역 조망에서는 책 내용 전체를 정리하며, 우리가 지역을 어떻게 이해하고 파악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기술할 것이다.

초고 작성 시에는 조사하여 분류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하며, 작성하는 기간 동안 수시로 답사를 실시한다. 초고 작성 후 전체적인 분위기를 확인하기 위해 편집 프로그램으로 구도와 배치를 잡아 PDF파일을 제작하여 지도교수에게 확인을 받아 내용을 진행하고자 한다. 추후 피드백을 받은 내용으로 수정 및 보완하여 원고를 완성한다. 이 과정에서 책자 제작 시 고려해야 하는 종이 재질, 커버의 종류, 폰트 및 디자인 등을 인쇄 업체와 상의한다. 표지 디자인은 개인적 역량 강화를 위해 외주하지 않고 자체 제작할 계획이다.

2.3. 결과물 완성

결과물 제작은 인쇄를 위한 업체와의 계약 및 과업 지시를 포함하여 진행된다. 비용 선 지급 후 결과물(책자 50부) 제작하여 지도교수 및 사업단에 각 1부 제출한다. 나머지 결과물들은 학과 사무실에 비치하여 도전학기 홍보 및 지역 홍보 자료로 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3. 도전 과제의 성과

도전 과제인 “지역 주제 에세이집 제작을 통한 전공 및 취업 역량 강화”에 대한 성과를 다음의 세 가지 기준에 따라 파악해보았다. ① 목표 달성 부분: 앞서 설정한 도전 과제의

목표 세 가지(전공 역량 강화, 취업 역량 강화, 지역 주제 에세이집 제작)에 비추어 활동이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였는가? ② 결과물 완성도 부분: 결과물(책자, 사진 작업물)의 완성도를 일정 수준 이상 달성하였는가? ③ 지원금 사용 부분: 계획했던 지원금 대비 사용량 및 내역이 적절하였는가?

3.1. 목표 달성 부분

활동 시작 전 세웠던 목표 세 가지(전공 역량 강화, 취업 역량 강화, 지역 주제 에세이집 제작) 중 이번 활동에서 가장 확실한 성과를 보인 것은 ‘지역 주제 에세이집 제작’이다. 2018학년도부터 동아리 부원들과 함께 출간한 “북성로대학” 시리즈와는 별개로 개인적인 경험과 지역 관련 스토리를 담아낸 첫 번째 개인 출판 서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북성로대학”은 대구 지역만을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나갔다면, 이번 에세이집 “나의 골콘다”는 경주와 대구 주변부 지역, 과거 포항의 지역을 답사했던 내용 등 다양한 지역 답사 경험을 담아낸 것에서 다르다.

지역 문화를 답사하고 지역 현안과 문제점 파악 등 관련 내용을 배우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를 직접 찍은 사진과 함께 엮어 출판하는 일은 일반적인 학과 전공에서는 할 수 없는 경험이다. 도전 과제를 통해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계획하고 결과물을 내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었으며, 해당 부분에서의 목표를 달성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전공 역량 강화’ 부분에서의 목표 또한 지역의 스토리를 파악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을 통해 성과를 볼 수 있었다. 앞서 목표를 세울 때, 지역에 담긴 다양한 스토리를 자신만의 방법으로 이해하고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을 했었는데, 이번 에세이집 제작을 통해 지역에 담긴 이야기와 역사 등을 단순히 공부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나의 생각을 더해 새로운 글로 풀어내었다는 점에서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취업 역량 강화’는 출판 및 디자인 계열 또는 예민한 언어 감각을 배양하는 쪽으로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수립한 목표인데, 이번 책자를 제작하면서 다양한 영역에서의 감각을 익힐 수 있었다. 출판 편집 프로그램인 ‘InDesign’을 사용하기 위한 프로그램 기초 공부를 하여 직접 편집 과정에 적용하는 경험을 할 수 있었으며, 사진 콜라주를 위해 다양한 영상 강의를 참고하여 실무 경험을 할 수 있었다.

3.2. 결과물 완성도 부분

우선 책자의 목차부터 이야기하자면, 목차 계획 시 ‘지역의 정의 - 지역 관찰하기 - 지역 재구성하기 - 추후 지역 조망’ 순으로 내용을 배열하고자 했으며, 실제로 목차의 이름은 바뀌었지만 ‘지역의 정의’는 ‘입구’, ‘왜 쓰는가’라는 두 파트의 내용으로 작성

하였고, ‘지역 관찰하기’는 ‘화수분’, ‘다시 오고 싶은 거리’, ‘골목, 신발보다 ^가싸다^다’의 세 파트의 내용으로, ‘지역 재구성하기’는 ‘사잇길 콜라주’로, 마지막 ‘추후 지역 조망’은 ‘나의 골콘다’, ‘출구’의 두 파트로 구성하여 계획했던 순서대로 내용을 전개하였다.

다음으로 사진 촬영은 대구의 촬영 장비 렌탈 센터에서 대여한 카메라로 진행하였으며, 일차적인 보정 및 편집 진행 후 출판사에서 세밀한 사진 편집을 도와주었다. 대여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 이외에도 내용 상 기촬영한 사진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일부는 이전에 찍어둔 사진을 사용하였다. 사진 콜라주 또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진행 후 출판사에서 후보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기존에 계획한 책의 분량은 150페이지였으나, 부수 추가 및 분량 미달의 문제로 130페이지로 수정하였으며, 장 제목이 있는 페이지는 뒷면까지 글을 쓰되, 그 이외 페이지에는 우측 페이지에만 글을 배치해 가독성을 높였다. 본문 포맷과 타이포그래피는 “열린책들 편집 매뉴얼(2020)”을 참고하여 글꼴과 일부 디자인을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표지의 연필체 그림은 대구근대역사관에 전시되어있는 사진 “빙상부원”의 선을 따 그린 것으로, 전체적인 배치와 디자인은 출판사와 상의 후 완성하였다. 마지막으로 내지와 표지의 종이 재질, 인쇄 품질 등은 출판사에서 견적을 내어 가장 내용과 잘 어우러질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하였다.

3.3. 지원금 사용 부분

계획했던 지원금은 총 1,740,400원이며, 재료비 490,000원 중 카메라 대여비 460,000원 사용하여 93.9% 사용하였고, 교통비 50,400원 중 동대구-경주 왕복 기차비로 23,000원 사용하여 45% 사용하였다. 인쇄비 중 책자 제작비는 기존에 계획한 960,000원 모두 사용하여 100% 사용하였으며, 복사비는 100,000원 중 98,450원 사용하여 98% 사용하였다. 회의비는 140,000원 중 13,600원 사용하여 10% 사용하였다. 총 사용 금액은 1,553,650원으로, 전체 지원금 대비 대략 90% 사용하였다. 코로나 여파로 인해 대면 인

터뷰를 거절하는 지역 주민이 많았고, 북성로 대학을 통해 만난 두 명의 “지역” 전문가 강연 시에는 회의비를 사용할 수 없어 지원금 사용이 불가했던 부분이 있었다. 또한 교통비도 기존에 계획했던 만큼의 경주 답사일에 우천으로 인해 답사를 가지 못하는 등 변수가 있어 계획한 만큼의 지원금 사용은 어려웠다. 그러나 전체 지원금 대비해서는 대략 90%를 달성하여 적정한 사용 수준을 보였다.

4. 자기평가

도전학기는 다양한 영역에서의 발전을 도모하고, 현재 나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출판 프로그램에 대해서 기존에는 막연히 어려운 것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책을 만들기 위해 직접 프로그램을 다뤄보고 사용하다보니 책을 만들 때 어떤 것을 고려해야 하는지, 어떤 책이 독자가 읽기 편한 책인지 등 독자의 입장이 아니라 제작자의 입장에서 책을 바라볼 수 있어 새로웠다.

단순히 감상의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실무적 역량에 있어서도 사진을 촬영하며 전문 카메라를 다루고 촬영하는 연습, 출판을 위한 사진을 보정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 등 실제로 책을 제작하는 경험을 통해 깨닫는 점도 많았다. “북성로 대학”을 제작할 때와는 다르게, 아래한글 프로그램으로 원고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 편집 프로그램인 Adobe사의 “InDesign”을 사용하다보니 해당 프로그램과 아래한글 프로그램의 차이를 알게 되어 앞으로의 책 제작 또는 출판물 제작 시에도 이같은 점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지역 관련한 주제에 대해서 공부한 것도 이전에는 한 지역의 역사, 문화와 현안 및 문제 해결 등을 공부했다면, 이번 도전 과제를 통해서도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지금까지 답사하고 공부했던 경험들을 조합하고 추가적으로 새롭게 알게 된 지역의 내용을 더해 ‘지역 주제 에세이’로서 정체성을 확실히 잡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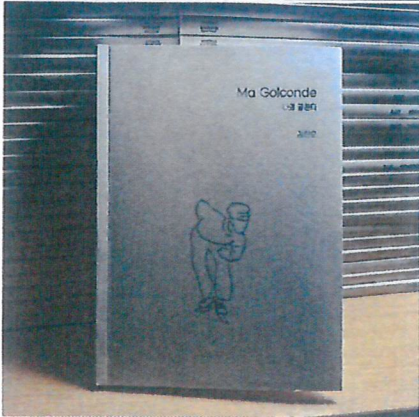
구체적 내용 면에서는 대구 시가지 주변 공평동 일대와 경주 황남동 일대 답사를 통해 지역이 가진 두 가지 얼굴을 비교하여 볼 수 있게 되었다. 각각의 거리가 획일화되어 차별성을 찾아보기 힘든 곳곳의 여러 지역들 가운데서도 자신만의 정체성을 갖고 지역의 특수성을 살려 활성화된 지역이 있는 반면에, 본래 지역이 가진 성격을 잊고 새로운 방향으로의 마케팅을 진행해 이도저도 아닌 모습으로 변해버린 거리들이 있다. 이는 비단 공평동과 황리단길만의 현상은 아니다. 넓게 보면 대한민국, 크게 보면 세계 곳곳에 이러한 공간들이 많을 텐데, 우리가 이러한 현상들에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이 거리들을 어떻게 가꾸어나갈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책자 마지막 부분 ‘추후 지역 조망’ 부분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이상적인 거리의 모습을 “나의 골콘다”라는 이름으로 설명하였다. “나의 골콘다”는 지역이 가진 고유의 감각들을 품은 채 다양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진실된 거리를 말한다.

책을 내기 위해 여러 사람들과 대화하고 답사하면서 단시간이었지만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이번에 느끼고 터득한 정보들과 감상을 통해 앞으로 더욱 다양한 분

야에서 이를 적용하고자 한다.

5. 최종 결과물

최종 결과물은 책자와 책자에 포함된 사진 결과물이다. 책자는 총 50부 제작하였고, 사업단 1부 제출, 지도 교수 및 도전학기에 도움을 주신 여러 사람들에게 배부할 예정이다. 또한 남은 부수를 이용하여 학과 내 동아리에 도전학기 프로그램 홍보와 지역 관련 특강 시 활용하고자 한다.

최종 결과물(책자)	
	
책자 표지	책자 총 수량(50부)

[참고 문헌]

박진관(2018), 대구지오그래피, 도서출판 보물섬
 신정일(2004), 다시쓰는 택리지 2, 휴머니스트
 신정일(2010), 신정일의 선택리지 경상도, 타임북스
 열린책들 편집부(2020), 열린책들 편집 매뉴얼(2020), 열린책들
 김찬호 외(2019), 북성로대학 두 번째 이야기, 더 폴락
 김상민(2018), 교토의 밤, 홍청망청북스
 BC카드 빅데이터센터(2020), 빅데이터 사람을 읽다, 미래의 창
 원문규(2016), 경주 휴, 종려나무